

오늘의 주요기사

2018년 06월 26일 (화)

순서	제 목	매체	카테고리	페이지
1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건축전 전주대 건축학과 28일부터	전북도민일보	사회	1
2	전주대 건축학과, 내달 12일까지 건축전 개최	전민일보	사람	2
3	전주대 건축학과, 28일부터 2주간 '제24회 건축전' 진행	전라매일	교육&문화...	3
4	전주대건축학과제24회건축전개막	호남제일신문	경제·교육	4
5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건축展	전주일보	종합	5
6	"사회적 이상향을 건축한다"	전주매일	경제·사회	6
7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건축전 진행	전북타임스	문화	7
8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을 건축한다'	삼남일보	사회	8

전북도민일보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004면 사
회 6.4 x 7.9cm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건축전 전주대 건축학과 28일부터

전주대학교 건축학과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란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와 함께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김혜지 기자

전민일보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014면 사람 10.4 x 8.6cm

전주대 건축학과, 내달 12일까지 건축전 개최

전주대 건축학과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된다.

전주대 임용민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적이다.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나는 값진 결과물을 둘러보고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복진기자

전라매일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005면

교육&문화&체육 6.0 x 10.0cm

전주대 건축학과, 28일부터

2주간 '제24회 건축전' 진행

전주대 건축학과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란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으며,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과장 임용민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나는 값진 결과물을 와서 둘러보시고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정석현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제24회 건축전 개막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주제

전주대 건축학과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서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지드래곤이 매입하여 화제가 됐던 ‘청담 마치래빗’, 서울시 최우수 건축상을 수상한 ‘논현 마트료시

카’, ‘상도 카모플라주’를 설계한 우리나라 정상급 건축가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과장 임용민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나는 값진 결과물을 와서 둘러보시고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셨으면 좋겠다”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김지애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건축展

전주대 건축학과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서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

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김동진 로디자인 대표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지드래곤이 매입해 화제가 됐던 '청담 마차래빗' 서울시 최우수 건축상을 수상한 '논현 마트료시카', '상도 카모플라주'를 설계한 우리나라 정상급 건축가다.

임용민 전주대 건축학과 학과장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나는 값진 결과물을 와서 둘러보시고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고병권 기자

전주매일

2018년 6월 26일 화요일 005면 경제·사회 12.2 x 14.4cm

“사회적 이상향을 건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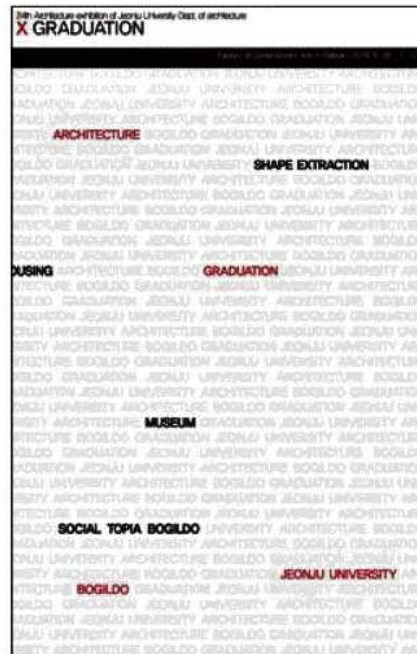
전주대 건축학과, 28일 건축전 개막식

전주대 건축학과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서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김 소장은 지드래곤이 매입하여 화제가 됐던 ‘청담 마치래빗’, 서울시 최우수 건축상을 수상한 ‘논현 매트료시카’, ‘상도 카모플라주’를 설계한 우



리나라 정상급 건축가다.

한편 전시회는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진행되며, 월요일은 정기 휴관한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 건축전 진행

전주대 건축학과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교육·경제·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

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해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과장 임용민 교수는 "건축의 결과는 항상 정직하다. 한 명의 건축가가 태어나는 값진 결과물을 와서 둘러보시고, 그들의 새로운 앞날을 축복해주셨으면 좋겠다"라며 환영의 인사를 전했다.

/황은송 기자

전주대, 건축학과 '사회적 이상향을 건축한다'

이달 28일 제24회 건축전 개막식

전주대 건축학과는 이달 28일부터 내달 12일까지 2주간 '사회적 이상향 보길도'라는 주제로 제24회 건축전을 진행한다.

이번 전시회는 다도해의 숨겨둔 보석으로 불리는 '보길도'에 초점을 맞췄다. 건축학과 학생들은 보길도에 방문해서 그곳 사람의 삶의 역사, 산업과 자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건축을 통해서 주거, 교육, 경제, 관광 분야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했다.

전주대 건축학과 학생들은 바지선에

교육시설을 더한 현지화 직능교육장을 개설하고, 외지인이 많이 유입된다는 인구통계학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외지인과 원주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소셜 다이닝 중심의 공동주거 공간을 제안하기도 한다.

이번 개막식에서는 로디자인 대표 김동진 소장의 초청강연도 진행한다. 김소장은 지드래곤이 매입하여 화재가 됐던 '청담 마치래빗', 서울시 최우수 건축상을 수상한 '논현 마트료시카', '상도 카모플라주'를 설계한 우리나라 정상급 건축가다.